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10. 구원의 근원

2018. 8. 24. 이현래 목사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히5:8~10).”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다. 큰 구원이라는 말은 천사의 구원과 아들의 구원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다.

천사의 구원은 범위는 큰 것 같지만 외적인 구원이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것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출애굽 사건은 크기로 하면 엄청난 사건이지만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 뿐이었다. 엄청난 사건인데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두 사람만 목 적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옛날에 선교회에 있는 청년이었는데 나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믿음을 굳게 잡고 살고 있다고 했다. 비슷한 말인데 내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겠느냐, 오직 두 사람 밖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 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다. 천사의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국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200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은 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반면, 아들의 구원은 내적인 구원이다.

요란하거나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내적인 변화이다. 새 언약의 내용은 결국 내적인 변화이다. 다시 태어난 변화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라는 뜻이다. 모든 구원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아들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기독교의 사정을 보면 아들의 구원보다 믿음의 구원이 아직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야생활을 못 벗어났다는 말이다. 어떤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이름 한 곳도 있다. 교회라고 하면 광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천사의 구원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들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천사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구원’에 있다. 아직도 천사의 구원을 계속 전하고 있다. 병을 고친다거나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아들의 구원을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아직도 광야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새 언약의 수준이 못 된다는 말이다.

구원은 구원자만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큼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만큼 구원이 된다.

모세의 구원은 모세 만큼이다.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를 따라 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가? 모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

천사의 구원도 그렇다. 천사의 구원이 아무리 커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천사는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어서 에덴동산을 경작하듯이 경작하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땅을 경작하는 세계이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먹는 생활인데, 가나안생활은 땅을 경작하여 소출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다.

광야에서 나온 것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땅에서 경작한 것이라야 한다.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그 땅에 이르거든” 여호와께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항상 나온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외적인 것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4:21).”고 하셨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출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을 경작하도록 위임된 존재이다. 이

동산을 네가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을 생산해 내는 존재이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밖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새 언약은 바깥에서 우리에게 뭘 주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구원이 크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는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다. 창시자라는 뜻도 있다. 구원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완결판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을 지나서 예수께로 온다.

그 구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새 언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삭을 낳은 것을 목표로 하듯이 전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의 목표는 이삭이다. 그것은 결국 생명의 약속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히5:8~10).”고 했다.

영원한 제사장은 또 영원한 구원이다. 천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이라면 아들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사장 만큼이니까 아론이 제한된 사람이면 아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한된 구원을 받는다. 모세가 제한된 사람이라면 모세를 통한 구원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한 구원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구원이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 말하는 이 큰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구원이 아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양식을 얻어먹었다.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고 영원한 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런 양식을 또 달라고 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너는 뭘 주겠느냐고 했다.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이것은 잠시 있는 양식이고 대신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6:54).”**라고 말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했다. 어떻게 네 살을 준다는 말이냐고 했다.

구원자만큼 우리는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 사장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먼저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이다. 마지막 고난의 결정체는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에게서 모든 능력을 뺏어가 버렸다.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은 인생의 운명만 남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상실된 것이다.

왜 이렇게 상실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다. 중보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베세다 광야에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하신 것이지 뛰어내릴 수 있으면 또 우리를 포함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안에 발견될 수가 없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고난이 결국 십자가이다. 만일 십자가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의미가 없다면 죽음은 무익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익하게 된다. 그냥 순교자의 십자가 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거나 희생을 전하는 것이 된다면 순교자의 십자가 밖에 안 된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구속을 위한 십자가이다.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가 다른 데 많이 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다. 무슨 의미로 붙여놓았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가 많다.

사랑이나 자비 등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들이다. 그런 상징으로 십자가가 쓰여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일이 된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목표가 없어진다면 무효화된다. **우리를 포함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졌는가? 그런데 **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를 포함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중보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잘 아는 보혜사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요14:16).”**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헛갈렸다. 어떤 사람은 보혜사를 만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혜사를 만나지 못

했다고도 하니까 헛갈렸다.

나도 이 보혜사를 만나기를 원한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보혜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다. 오순절 계통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도 ‘또 다른 보혜사’를 강조한다.

왜 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모르겠는지 도저히 안 됐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왔다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다 알게 한다는 것이다. 내 안에서 보혜사가 다 가르쳐 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는가? 그런데 안 된다.

왜 그렇게 나는 안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영원히 보혜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원래는 이방인인데 갑자기 교회로 왔다. 여름집회 때인데 사람이 바뀌었다. 그 형제 말이 보혜사 성령을 봤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면 누구라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는 것이 아니다. 아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보혜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내 생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꼭 이것만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미를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고난이다. 십자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이다.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갈 때 목숨을 걸고 올라간다. 히말라야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다면 그 마음 때문에 즐겁게 올라간다. 갔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도 늘 또 도전한다. 왜? 자기마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식하라는 것도 안 된다. 너는 그 날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안 되겠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지 말라는 것이다.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난이다.

한참 나대는 아이들은 꼭 붙잡아 놓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고난이다. 생명이 발동하는데 붙들어놓고 있으면 그것이 고난이다.

고난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완전히 안 되는 것이 고난이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만나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모두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안 되기 시작한다. 선생님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내 마음대로 있게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거기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아이는 영리한 아이이고, 이것을 모르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속 울기만 한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은 무엇부터 배우는가? 고난부터 배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배운다. 예수님은 무엇이 고난이었는가? 믿으라고 이적을 보이면 그 이적을 따 먹으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닌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다.

이적을 보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보인 것인데, 주려고 하는 것은 가지고 가지 않고, 그것만 따 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제자들이 따라 오면서 박수를 쳤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계시더라는 것이다. 이럴 때는 외롭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9:58).”**고 한다. 어디에 얻어맞아서 고난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고난이다.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다 안 된다. 마지막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로 안 되는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이 말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누가 때려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서 고통 받는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편하다. 대인관계도 편하고 다 편하다. 네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고통스럽다.

인생이 괴롭다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괴롭다고 한다. 누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 가도 그렇고 다 하는 말이 자기를 비우

라고 한다.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요즘 어떤 스님이 유명한데, 즉문즉답 하는 것을 들어보았다. 어떤 사람이 화를 못 참겠다고 하니 그 스님이 그 화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니 상대방은 괴롭게 하는 것이고, 화는 어디서 나느냐고 또 물은 다음 당신 마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질문한 사람이 한참동안을 우겼다. 내가 저절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화는 본인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화가 안 나면 되는데, 옆에서 건드리니까 화가 난다.

화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지 상대방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사는 도사였다. 화가 어디서 나는가? 누가 갖다 주는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다. 도움이 많이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기 마음대로 되면 화가 안 난다.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보라. 산소가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돈 주고 하라고 한다고 하겠는가? 못한다. 자기 취미로 하는 것이니까 한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고난이다.**

십자가는 완전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이다. 꿈쩍을 못한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다. 어떻게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적을 보이면 그것만 따 먹자고 온다.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빵 한 조각을 주려고 그 일을 했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했는가? 달아나버렸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다 달아나버린다.

이적을 보여주면 그것만 먹자고 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6:26).” 먹고 배부른 것이 이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반대로 알아듣는다고 생각해보자.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고 전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알아들으면 살맛이 나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엉뚱한 생각만 한다면 것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괴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편한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대우받고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내가 처음에 목회하러 갔을 때, 열심이 있는 집사님이 있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걸린다.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교회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한다. 그 집사님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내가 일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데, 교회 일 좀 같이 하자고 한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다. 저 집사님은 왜 말씀을 저렇게 하나 했다.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일을 같이 하자고 한다. 어떻게 들으면 모독적인 말이다. 오죽 들을 말이 없으면 저러겠는가 한다.

예수님이 동네에 내려가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가 오는 길인데 아직까지 여자와 말하고 있다고 제자들 중 누가 말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먹을 양식이 무엇이겠는가? 그 여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부르겠는가!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요4:32).”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4:35).”**는 이런 말씀이 모두 같은 말이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으로 만족하느냐는 다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내가 충주에 있을 때 그래서 벽에 부딪쳤다. 충주 사람들의 기질이 여간해서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다. 좋다 나쁘다는 표정이 별로 없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다. 그때 마침 혼자 자취하던 때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충주 사람이기도 했지만 내가 전하던 말이 맛이 없었던 것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시19:10).”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이렇게 꿀과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을 듣고도 왜 반응이 없을까? 이런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한다고 한 것이 딱 10년이 되던 때였다. 그 전에도 그랬다는 말인데 충주에 와서 부딪친 것이다. 그래서 캄캄해졌다. 내일 또 가서

말씀을 전해도 역시 반응이 그럴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 생각을 하니깐 앞이 깜깜해졌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었다. 회관에 가야 하는데, 가봐야 허당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내를 배회하다가 책방에 들어갔다. 거기서 책 한 권을 만났는데, 그것이 워치만니를 만난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내가 새 언약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답답하고 비참한 것은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기적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버리고 가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된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외로워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된다.

아이들이 마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에 불안해지는 것과 똑같다. 처음 보는 아이들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잘 논다. 다른 사람이 쳐다봐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논다. 그런데 엄마가 어디로 가고 없으면 대번에 운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 망가져버린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인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고난이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고 한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순종함을 배워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이런 소리 못한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려온다. 인생은 흠이다. 초로와 같다. 아무리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겠는가? 이런 사람은 참 어렵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고난이었다.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는 고난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요1:11).” 이것이 고난이다. 분명히 복을 주러 왔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

들이지 않는 이것이 고난이다.

잠도 뜻대로 자지 못하면 고난이다. 불면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가? 내가자는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잔다. 그것이 괴로운 병이다. 내가 호흡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느라고 한번 수면센터에 가본 적이 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부산에 개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산까지 갔다. 하룻밤 자는데 50만원으로 일류호텔보다 비싸다.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잠자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잠자는 중에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인데 그 예약이 밀려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불면증 환자들이 밀려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복이다.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말뚱말뚱한 것이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것이 고통이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이 고통이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도를 통하는 일이다. 이것만 알면 세상이 편해진다. 이것만 알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신경질 날 일도 없다.

내가 흠이라고 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저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하면 간단하다.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깐 얼마나 괴로운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봐라.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또 없다. 말을 들어 주겠는가? 나는 처음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러 왔으니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계획을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을 따라주겠는가? 안 따라준다. 나는 경영자처럼 생각을 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미워지고 걸림돌이 된다. 젊은 나이에 새파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괴로움을 자초한 일이었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나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을 보고 내가

차라리 너 혼자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를 고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이 사람 좋아지면 다른 사람이 또 걸리고, 또 그 사람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이 또 걸린다. 계속 걸린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자기 혼자 고치는 것이 좋다. 나 한사람만 고치면 다 좋을 것인데, 나 한 사람은 그대로 놓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교회에서 사람을 고치려고만 생각하면 피가 마르는 것이다. 편안하게 살려면 사람을 고칠 생각을 안해야 된다. 남 고칠 생각을 안 해야 된다. 내가 고치는 것이 쉽지 남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런 부질없고 철없는 생각을 젊었을 때는 했다.

처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젊은 날에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었다.

원지는 모르는데 긍정적으로 변하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마음에 있는 대로 봉사를 해보았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보았다. 원지 확실히 몰랐지만 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세례를 자원해서 받았다. 거리껴서 받지 못했는데,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지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이 한 마디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어봐야 헛일이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 봐도 헛일이다. 창세기 1장1절이 괜히 써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써놓은 것도 아니고,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써놓은 것도 아니다. 인생을 써놓은 것이다. 인생의 기점을 말해주려고 써놓은 것이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야 된다. 다른 데서 시작해보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말씀이 들리겠는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겠는가? 말을 타고와도 시원치 않은데 거지 같이 시골에서 와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양이 차겠는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에 차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이

었다. 자기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보이려고 왔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나올수록 점점 더 배척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배우니까 내가 온전해진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순종함을 배워서 시인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그것만 알면 사람이 아주 달라진다. 그것만 알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사람이 돼버린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말이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이 안 들어간다. 다 자기대로 해석하고 자기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다. 듣기는 한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다. 가서 말할 때는 다 다르게 말한다. 듣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나가서 표현할 때는 각기 다른 말을 한다. 자기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이단이라고 찍한 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걸리는 말을 못한다. 내가 신학에 어긋나는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들은 사람이 다르게 말해버린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듣는 대로 말하는 것을, 자기 듣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몇 번 교회에서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감당을 해야지 내가 뺏어버리면 그 사람이 견디지를 못한다. 내가 토하면 그 사람이 있겠는가? 못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말씀이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되면 히말라야에 올라가도 행복하고, 안 되면 잠을 못자도 괴롭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충고하는 말이 잠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잠 못 자서 죽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자더라도 자는 것이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행군을 하면서도 잔다고 한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가면 그 중에서 자는 놈이 있다. 물살에 딸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깨면 또 가는 것이다.

사람이 잠을 전혀 못자면 죽는다. 쥐 실험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한쪽에는 먹을 것을 맘껏 주고 잠을 안 재웠다. 한쪽은 아무것도 안주고 잠을 재웠다. 누가 더 오래 살겠는가? 잠자는 놈이 오래 살았다.

역지로 잠을 못 자게 하면 고문 중에 고문이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찰서나 검찰에 가면 고문을 받는 것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다. 눈앞에 밝은 빛을 비추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잠을 안 재우는 것이다. 혼자 그렇게 하겠는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 너무 괴로우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때리지 않고 하는 고문이다. 때리는 것보다 더한 고문이 그것이다.

사람은 잠을 못 자면 못 산다.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는 것인데 자기는 잔 것을 모른다. 잠을 안자도 안 죽는다고만 알면 불면증을 넘어가기 쉽다. 문제는 나는 잠을 못자면 못살겠다는 이 생각이 더 괴로운 것이다. 잠을 안자면 못 산다는 이 생각이 더 괴로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고통이다. 그러면 고통에서 해방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 마음대로만 되면 된다. 내 마음은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스님이 하는 말이 그것이다. 마음이 남의 것이냐? 내 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어렵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목적지에 달성했다, 도착했다는 말이다. 도에 이르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불교말로 하면 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5:8,9).”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분을 받아들이면 나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따로 온전하게 되려고 애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을 시인하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래서 대 제사장이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 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을 미리 겪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도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겠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나는 인생이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을 내가 굳이 거부하려니까 괴로운 것이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니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누가 왔는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한다.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라는 말에 뭔가 걸림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뻥 뚫린다는 것이다. 뻥 뚫리면서 자기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왜 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가? 이번 주도 또 그렇다는 사람도 있다. 반응이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쉬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쉬우니까 반응이 또 이상하다.

내가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가? 신약 안에 포함된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은 그분 자신 안에 들어있다.

그분이 나에게 없는 한, 그분과 내가 연합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축복은 나와 무관한 축복이 되고 만다. 내가 따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따로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지 내가 따로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이 **생명의 증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2,3).”

이 말이 시공간적인 말 같지만 시공간 적인 말이 아니다. 생명 안에 있는 말이다. 그 안에서밖에는 내가 아버지께 갈수 없다. 그분이 앉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에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내가 얼마나 도사가 되어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겠는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려니까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밖에는 갈 수 없다.

그 안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

전한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가 있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다.

더 이상의 쉬운 복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전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래서 감추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탄이 가리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잃어버린 위치가 예수 안에 있다.** 구원은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위치를 회복하면 모든 권리가 따라온다.

대장에서 파멸되었던 사람이 다시 대장으로 복귀하면 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가 다시 다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다시 돌아온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로 오는 것이다. 길(노선)이 그렇다.

그것이 전부 위치회복이다. 달성된 것이 어디인가? 위치가 회복된 데가 달성된 곳이다. 이것이 구원의 종착역이고 완성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한 위치에 이르렀다. 그것이 구원의 목표이고 최종적인 구원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에덴동산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모른다. 내가 거기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번에도 토론방을 보니까 선악과를 놓고 왈가왈부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를 아주 장황스럽게 늘어놓고 있다. 지식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 동산을 모르는 것이다. 동산안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화염검으로 가려 놓았다. 그룹들로 지키게 해 놓았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다. 예수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한 아무도 볼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분이 참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분이 참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데가 있다.

어디로 가겠는가? 회개하면 어디로 회개하는가? 회개하면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한다. 이분을 아는 것이 회개를 해도 갈 데가 있다. 내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은 예수를 봐야 알지 나를 봐서는 모른다.

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알겠다고 꾸그리고 앉아 있다. 안타깝다. 언제 한 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느냐고 하고 싶다. 그러면 싸움이 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냥 알 것인데 뭘 눈감고 앉았느냐고 한번하고 싶다. 싸움을 할 필요도 없다.

십자가에 남은 인생! 그것만이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다.

이 자리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다. 우리 눈에는 쓸모없는 자리인데 이 쓸모없는 자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자리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왜 못 썼는가? 100살이 될 때까지 못 쓴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가 볼 때 전혀 쓸모없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자리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이다. 우리가 구속받을 자리이다.

예수님도 무엇을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것밖에 없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가 돌아갈 진실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영원한 위치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뛰어 돌아다니는 놈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제 멋대로 뛰는데 어떻게 쓰겠는가.

미꾸라지라는 놈이 참 신기하다. 어떤 장로가 한번 논에 미꾸라지를 키운다고 팔심만 마리의 유치(새끼)를 논에 가져왔다. 논에 가져다 놓는데 땅속으로 못 달아나게 하려고 함석으로 논 가장자리를 다 돌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가락만큼 컸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다.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소나기가 올 때, 물을 타고 모두 올라가버렸다.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다. 80만 마리가 그 논안에 있었는데 일시에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람이 잡아간다고 그렇게 되겠는가? 위에 그물을 치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 모

기장이라도 쳤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옆에만 단도리를 했는데 전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일확천금의 꿈이 날아가 버렸다.

미꾸라지가 제 멋대로 가는데 그 놈을 잡을 길이 없다.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 버리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나는 말만 들었다. 옛날부터 소나기 오고 나면 붕어 같은 것이 마당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물줄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런 놈은 쓸 수가 없다.

재주가 있는 놈은 더 못 쓴다. 재주가 있을수록 더 못쓰고, 위대할수록 더 못 쓰는 이유가 그것이다.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예수 같은 그 사람이라야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보다 더 나아서는 쓸 수가 없다.

왜 그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가?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창시자다.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지만 완성은 예수에게 와서 완성이 되었다. 100살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아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십자가에 남은 인생, 그 인생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거기에 다른 것을 붙여놓으면 온전해 질 줄 아는데 온전해지지 못한다. 지식을 붙여놓으면 헛 누더기, 저것도 붙여놓으면 헛 누더기, 심지어는 종교적인 믿음, 그것도 붙여놓으면 그것도 헛 누더기가 된다. 뭐든지 붙여놓으면 장애물이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한자리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